

196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63) 벗겨지기 쉬운 박 전사 가공

□ 벗겨지기 쉬운 박 전사 가공

해설)

- 이 제품의 가공 상태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, 마, 면 혼방 천의 표면을 푸르게 염색하고, 또 한 번 은박을 전사한 것임을 알 수 있음. 또 사고 부분에서 띠 모양에 표면의 박 및 염색이 벗겨지고, 필링이 발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.



- 이러한 필링은 주로 마찰에 의해서 발생되며, 특히, 주된 소재인 마는 주름이 지기 쉽기 때문에 주름이 발생한 각진 부분에서는 강한 마찰의 영향을 받기 쉽다

고 할 수 있음.

- 이 제품의 경우 최상부의 은박이 닳아 떨어져 한층 더 청색부가 닳아 떨어져 흰 섬유가 마모된 상태로 관찰되었음. 이러한 현상은 한번의 클리닝 공정으로 이러한 상태가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며, 착용중에 꺾인 주름이 발생하여 그 부분이 손상되어 있던 것이 클리닝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벗겨져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었음.
- 소맷부리나 옷자락 등의 착용 마찰을 받기 쉬운 부분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과정으로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음.
- 이러한 가공의 경우, 착용 마찰에 의해서 벗겨져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측은 상호 이러한 제품의 특징과 착용 열화에 의한 변화를 사전에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.

♠ 자료출처 : 송중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www.textilecare.kr